

[준기획] >> 3면  
OT와 수강정정 병행 문제

[기획] >> 5면  
글로벌 캠퍼스 취약한 안전 환경

[사회문화] >> 8면  
1인 기획사 탈세

[학술] >> 9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 우리학교 새맞이 행사, 신입생 환영 무대 아래 남은 과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새맞이 행사가 개최됐다. 신입생 환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지만 외부인 유입과 대포 카메라 사용 등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새맞이 행사의 △현황△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지난달 27일 2026학년도 우리학교 입학식이 개최됐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는 오전 11시 설캠 오바마홀(Osama Hall)에서 입학식이 진행됐으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는 오후 3시에 글캠 백년관 컨퍼런스홀(Conference Hall)에서 진행됐다. 이번 해 우리학교에는 설캠 2,199명과 글캠 1,801명 총 4,000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이날 입학식은 양 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입학 축하 영상 상영△기수단 및 내빈 입장△국민의례△내빈소개△입학허가 선언△신입생 선서△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 축사△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며 이제 합격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강조했다. 또한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며 신입생들에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가족△재학생△지인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입학식이 끝난 뒤 캠퍼스 곳곳에서는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신입생과 가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강기훈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 강기훈 우리학교 제13대 총장 취임식 개최

우리학교는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강기훈 우리학교 제13대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김종철 동원육영회 이사장의 임명장 수여와 치사를 시작으로 △총장 열쇠 및 교기 인수△축사△취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강기훈 총장의 은사인 박병욱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석좌교수△김덕술 우리학교 총동문회장△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가 축사를 통해 강기훈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우리학교의 도약을 기원했다.

강기훈 총장은 취임사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도 언어와 인문학이 지닌 가치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전통 위에 혁신을 더하고 언어와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언어와 AI 그리고 인문과 데이터가 결합하는 새로운 교육과 연구 모델을 통해 대학의 미래 경

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우리학교는 외국어와 지역 연구를 통해 세계와 우리나라를 연결해 온 대학이기에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여는 글로벌 지식 혁신 허브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연구·산업이 선순환하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학 운영 체계 구축△정부 재정지원 사업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AI 및 데이터 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AI 캠퍼스 실현을 약속했다.

강기훈 총장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통계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1년 우리학교 교수로 임용된 이후 행정지원처장과 산학연계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통계학회장을 맡아 학문 발전과 학술 교류에 기여했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 아름다움에 건강을 더하는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바이오플러스

세계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로 의료기기와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일상과 건강에 더 가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Life Plus, Bio Plus<sup>+</sup>



www.bioplus.co.kr

# 현마육영재단 이성희 이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본관 이덕선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이하 재단) 이성희 이사장(이하 이사장)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이 이사장은 기업 경영의 성과를 교육과 인재 양성에 환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대통령 추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0년 설립된 현마육영재단을 통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 원칙으로 지난 15년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겸임 및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현장의 경영 경험을 후학들에게 전했고 모교 발전 기금을 꾸준히 기부하는 등 대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5일 무역 진흥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재단은 사회 전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 이사장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하기 위해 지난 1954년 이래



국내 유일의 외국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 출범해 오늘의 글로벌 대학이 되기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학교의 인재들을 위한 기금 46억여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이후 이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길 바라고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영구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견진만 전 재무대의협력처장(이하 견 전 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25 국민교육발전 유공 대상자로 선정된 이 이사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수식에는 이 이사장을 비롯해 이준섭 현마산업 대표와 손자 이건이 참석했으며 △김민정 대외부총장△견 전 처장△박정운 우리학교 전 총장(이하 박정운 전 총장)△이지연 전 설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이재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이 함께했다. 박정운 전 총장은 “이성희 회장님께서 오랜 기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학생들과 만나 삶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전하는 등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며 “교육 발전을 위한 헌신을 몸소 실천해 오신 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어진 훈장의 의미에 걸맞게 교육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 2025 겨울 ‘외대쌤 영어브릿지’ 수료식 개최

우리학교 교육혁신원은 지난달 5일 동대문구 초등 영어 특강 ‘외대쌤 영어브릿지’ 수료식을 개최했다. 외대쌤 영어브릿지는 우리학교와 동대문구청이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 재학생들이 영어 학습 전환기를 맞이한 초등학생 고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영어 학습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운영되며 지역-대학 협력 기반 교육 모델로 2회 연속 진행됐다.

10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우리학교 재학생들이 외대쌤으로 참여해 교육혁신원 책임연구진의 사전 컨설팅과 워크숍을 통해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했다. 이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도를 진행하며 참여 학생들의 학습 성취 향상을 지원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혁신원장 명의 수료증과 동대문구청장 명의 감사 경력증서가 수여됐으며 활동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외대쌤



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외대쌤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은서(사범·영교 23)씨는 “실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 보며 교육 진

로에 대한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엄은세(영어·영문 24)씨는 “이론으로 배운 교수법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동료 외대쌤들의 피

드백을 받는 과정이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체감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사훈 우리학교 교육혁신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재학생 역량 강화와 지역 교육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우리학교와 동대문구가 지역-대학 협력 기반의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 우리학교 경영학부 최형용 교수, 국민포장 수훈



최형용 우리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최 교수)가 지난달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한 국민권익의 날은 매해 2월 27일로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된 기념식에서는 △권의 증진△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유공자를 포상한다. 해당 기념일은 국민의 소통과 권익 보호 의지를 다지는 날로 조선 태종 시대 신문고 설치 위민 정신을 이어받았다.

최 교수는 정보시스템 전공 경영학박사로 지난 2024년에는 우리학교 기획조정처장과 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우리학교 경영대학의

정보시스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 △한국경영학회△한국경영정보학회△한국전략경영학회 이사 활동 등 경영 관련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 자문과 심사위원 활동△리스크 관리와 감사△부패 리스크 매핑(mapping)\*△윤리경영 자문 활동으로 공공과 민간의 청렴도 제고 및 청렴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교수가 수훈한 국민포장은 헌법과 상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으로 상훈 체계에서 훈장 다음에 해당하는 높은 훈격의 포장이다.

\*매핑(mapping): 입력 데이터를 원하는 목적지에 배치하는 작업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 우리학교 이상빈 교수, 한국번역학회 제14대 회장 취임

이상빈 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가 국내 최대 규모의 통번역 분야 학술단체인 한국번역학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교수는 그간의 교육 및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동원교육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자랑스러운 외영교수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학교 학보 편집인 겸 주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통번역사△이익훈 어학원 통번역대학원 준비반 강사△정부기관 통번역 관련 자문위원 및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과 현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번역학회 편집위원장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난 201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인문분야 최우수 연구자로 선정되며 번역학 연구에서도 성과를 이어왔다.

한편 지난 1999년 창립된 한국번역학회는 국내 번역 연구와 번역 문화 발전을 견인해 온 대표적



인 학술단체이다. 한국번역학회가 발행하는 『번역학연구』는 지난 2024년 기준 KCI 인용지수에서 △인문학 저널 659개 중 12위 △즉시성 지수 2위△피인용 횟수 6위를 기록하며 학문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번역학회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계와 현업 통번역 전문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번역 관련 정책 연구와 학술 자료 발간을 통해 국내 번역 교육과 연구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 OT와 수강신청 정정의 병행, 학생들의 혼선 줄이기 위해서는

개강 첫 주 우리학교 곳곳의 강의실에서 수업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이 진행됐다. OT에서는 △강의 방식△과제 안내△성적 평가 기준 등이 전달돼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고 수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학교에서는 OT가 진행되

는 시기와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겹쳐 학생들이 수업 참여와 수강신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OT 운영 현황과 수강신청 정정 기간 병행의 장단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OT 운영 현황과 수강신청 정정기간 병행의 장단점

우리학교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개강 후 첫 수업 시간에 OT가 진행된다. OT에서는 △강의 계획서에 대한 설명△수업 운영 방식과 과제△평가 기준에 대한 안내 등이 이루어져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수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안내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OT는 현재 수강신청 정정기간과 함께 병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을 직접 파악한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OT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강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강의계획서만으로는 수업 분위기나 과제 부담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OT를 듣고 수업 방식이나 내용이 기대와 상이할 경우 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조정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OT와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여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수강신청 정정 과정에서 수시로 수강신청 시스템을 확인해야 하기에 OT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정정 기간에는 원하는 수업의 자리가 언제 생길지 몰라 수업을 잡지 못해도 계속 수강신청 시스템을 확인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OT를 듣지 못하거나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뒤늦게 수강신청에 성공해 OT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후 수업에서 수업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C 씨의 경우 “수

강신청 정정 기간 때 수업을 잡아 OT를 듣지 못한 상태로 수업에 갔는데 알고 보니 노트북을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수업이었다”며 “이 내용이 OT 때 언급돼 수업을 준비해 가기 어려웠고 심지어 해당 수업이 실습형 수업이어서 수업 내용을 많이 놓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재학생 D 씨는 OT 때 이루어지는 조 편성 과정에서의 고통을 토로했다. D 씨는 “일부 수업에서는 OT 시간에 조 편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강신청 정정 때 합류해 이미 조가 다 짜인 상황이어서 당황스러웠다”며 “정정 기간과 OT가 겹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OT와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병행되는 운영 방식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확인한 뒤 수강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 일정을 단순히 분리하기보다는 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도 불리함 없이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

우선 OT 시간과 수강신청 정정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OT를 온라인 강의나 과제로 대체하여 출석을 대신하거나 수강신청 정정 시간대를 수업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고려대학

교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 시간이 오후 7시 30분과 오후 8시에 운영이 돼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러한 시간 배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강 정정 시간을 미룬 것이다. 또한 일부 강의에서는 뒤늦게 신청해 OT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중요한 안내사항을 전달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학교 Macroeconomic Analysis 수업의 경우 OT에서 사용한 강의안과 수업 내용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녹화 영상 강의를 올려 OT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추후 진행될 수업 내용을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수업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리와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 후속보도

# 우리학교 기초과목 제도의 현황과 과제

지난 1105호에서는 기초과목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다뤘다.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기초 교과목 부족 및 통합모집계열 학생들

의 수강신청 문제와 같은 새로운 논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기초과목의 현황과 한계△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학교 기초과목 제도의 현황과 한계

지난해 우리학교에 기초과목이 신설되며 기존 재학생들의 기초과목 수강 신청이 제한돼 시간표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캠퍼스 간 이중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들은 타 캠퍼스 전공의 기초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학교에 별도로 문의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2학기부터 기존 재학생과 캠퍼스 간 이중 및 부전공 이수 학생 모두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기초과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기초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의 범위도 확대되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이전보다 넓어졌다.

그러나 기초과목 제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학부 및 학과 차원에서 기초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의 범위를 확대했지만 개설된 과목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제1전공 학과에서 인정하는 기초과목만으로 졸업 필수 요건인 기초 6학점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경우 학생들은 대학 기초 교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 기초 교과목은 ‘언어와 마음’과 ‘지역학개론’ 두 과목만 개설돼 있어 선택 가능한 과목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기초과목이 3학점인 학과는 제1전공 학과 인정 기초 과목만으로 6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반면 2학점인 학과의 경우 세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필수 학점을 충족할 수 있어 학과 간 부담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학부 및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설된 통합모집계열 학생들 역시 기초과목 운영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양어대학의 경우 학부 및 학과마다 기초과목 운영 방식이 상이해 계열 모집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언어를 접해본 후 전공을 결정하려 했던 학생들이 1학기에 특정 언어의 기초과

목을 수강한 뒤 2학기에 또 다른 언어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려는 경우 1학기 수업 내용을 스스로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학교 핵심외국어계열 소속 재학생 A 씨는 “1학기에는 기초프랑스어를 수강하고 2학기에는 기초스페인어2를 수강했는데 전부 처음 보는 내용이라 따로 공부하거나 찾아봐야 해서 번거로웠다”고 부담감을 토로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기초과목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기초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 기초 교과목의 개설 수를 늘려 학생들이 기초학점을 이수할 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부대학교의 경우 2개 캠퍼스 11개 학부의 재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 교과목의 주제 분야 △개설 희망 교과목△교양 교육 개편이 시급한 과제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양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또한 현재 대학 기초 교과목이 ‘언어와 마음’과 ‘지역학개론’ 두 과목에 그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추가 과목 개설에 대한 논의해 볼 수 있다.

또한 통합모집계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학사 운영 역시 필요하다. 통합모집계열 학생들이 여러 언어를 경험한 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과대별로 기초과목 운영 방식을 통일하거나 단과대 차원에서 계열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목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학부 및 학과별 기초과목 체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기보다 특정 언어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의 경우 특수외국

어(중동지역)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팀티칭 수업을 개설해 중동 지역의 언어 중 △아랍어△페르시아어△튀르키예어와 각 지역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수업을 수강한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계열 소속 학생 B 씨는 “수업을 통해 지역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언어에 대해서는 배울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팀티칭 수업은 학생들이 각 언어권의 △문화△사회△역사를 폭넓게 이해하며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지역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언어 자체를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열 내부 학과들이 기초과목 체계를 통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모집계열 학생들의 탐색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과 학생들의 학습 깊이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필수 과목은 기초과목과 별도로 개설해 각 학과 소속 학생들이 해당 언어를 심화해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 수업과 심화 전공 수업을 분리해 운영한다면 통합모집계열 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학과별 전문성 역시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과목 제도는 계열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며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학부 및 학과 학생들이 전공 언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실제 학사 운영 속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 우리학교 새맛이 행사, 신입생 환영 무대 아래 남은 과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새맛이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동아리박람회와 신입생환영회 무대로 구성된 신입생이 우리학교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됐다. 특히 지난 3일 17시부터

시작한 신입생환영회 무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맛이 행사에서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새맛이 행사 현황△새맛이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새맛이 행사 현황

우리학교 설캠 제59대 총학생회 '박동'과 설캠 제43대 동아리연합회 파동이 개최한 이번 새맛이 행사는 '해동: 세계에 동이 트는 순간'이라는 표어로 신입생이 우리학교 구성원으로서 세계 곳곳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갈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중앙동아리와 같은 각종 단체를 소개하는 동아리박람회와 신입생환영회 무대로 구성됐다. 동아리박람회에는 △아이기스△외대축구부 △영상사업단 등 총 26개의 중앙동아리 부스와 동아리연합회 및 총학생회가 주관한 중앙부스가 마련됐으며 △사주타로△바이킹△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형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신입생들은 동아리 부스를 둘러보며 동아리 소개를 듣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생환영회 무대에선 △노래나래△아이기스△외인부대의 무대가 이어졌다. 이어 단위별 대표들의 외대인 선포식이 진행돼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후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을 비롯해 '하츠투하츠'와 '체리필터'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우리학교 신입생 박서진 씨(아시아·몽골어 26)는 "신입생으로 처음 참여한 새맛이 행사는 대학 생활의 시작을 실감하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다양한 △공연△부스 체험 △푸드트럭을 즐기며 동기들과 가까워지고 학교 분위기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 ◆새맛이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새맛이 행사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편이 있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먼저 이른바 '홈마'라 불리는 팬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홈마는 홈페이지 마스터(Homepage Master)의 줄임말로 연예인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해 SNS나 팬사이트에 게시하는 팬을 뜻한다. 최근 대학축제에 인기 아티스트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촬영 목적의 팬들이 캠퍼스로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이번 새맛이 행사에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X(구 트위터) 상에서는 우리학교 학생증 및 신분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나민석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나 회장)은 "X 상에서의 신분증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올린 이들의 신원도 확인했으며 타인에게 판매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하은 자원봉사팀장(이하 김 팀장)은 "'외대인' 인증 절차에서 학생증이나 신분증이 본인 것이 아닌 경우가 7~8명가량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거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후 총학

은 외부인의 입장을 통제하고자 철저한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학생증을 제시했는데 검사하시는 분이 자세히 보는 거 같아 신뢰감이 생겼다"라며 "초반에 들어갈 땐 빠르게 들어갔는데 아티스트들이 올 시간이 되니까 조금 지체돼 보이긴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다른 대학 사례를 보면 입장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기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라며 "외대인 인증을 위한 확실한 수단은 확인하되 지나치게 세세한 질문으로 외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학교 학생들이 최대한 원활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왔음을 전했다.

또 다른 문제로 이른바 대포 카메라 사용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대포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에 대포처럼 긴 망원 렌즈를 단 카메라를 뜻한다. 이러한 대포 카메라는 긴 렌즈 및 큰 부피로 공연 관람을 방해할 뿐 아니라 충돌을 유발해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이를 우려해 실무진이 관람석 내부에서 대포 카메라가 발견되자마자 경광봉으로 확인한 뒤 해당 장비를 반입한 이들을 공연장 밖으로 안내했다"라며 "관람석 안에 있던 관람객들은 대포 카메라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일부 관람객이 대포 카메라를 공연장 내부로 몰래 반입해 촬영해서 공연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해 공연장 내부에서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 외부에서도 대포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동선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나 회장은 "이번 축제에서는 대포 카메라 이용자들을 보행로 바깥의 장소로 안내해 촬영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카메라와 관람객 동선이 겹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만큼 대포 카메라에 대해서는 관람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일부 홈마들의 무분별한 촬영과 외부인 유입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촬영 수요를 일반적으로 막기보다 홈마존 혹은 외부 관람객존 등 별도 구역을 마련해 관리하는 방식을 참고해볼지 하다. 실제로 한국체육대학교는 지난해 5월 열린 '천마축제: 락 대학축제'에서 홈마존과 외부 관람객존을 재학생존 외부에 별도로 배치해 운영했으며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대포 카메라△삼각대△셀카봉 사용을 제한하고 불을 시 퇴출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고려대△경희대△세종대 등도 관람석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거나 외부인 구역을 별도로 운영했다. 우리학교 역시 홈마존 및 외부인 구역을 재학생

관람 구역과 분리해 운영한다면 일반 관람객의 시야 방해와 동선 충돌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이번 축제에서는 대포 카메라 이용자들을 보행로 바깥의 일정 장소로 따로 모아 사실상 대포 카메라존처럼 운영했다"라며 "이번에 처음 시도한 방식이었는데 마찰도 줄고 시야도 조금 더 트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려대 등 다른 대학에서 대포 카메라 구역을 따로 두고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며 "향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포 카메라존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대포 카메라 구역의 위치와 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한다면 향후 축제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외부인의 부정 입장을 막고 우리학교 학생들의 입장 지연을 줄이기 위해선 인증 절차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생증 및 신분증 확인 방식은 기본적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 QR코드나 모바일 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실제로 연세대 응원단은 지난 2024년 '아카리카'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티켓 제도를 도입해 티켓 양도와 압표 거래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다. 우리학교도 이를 참고해 인증 절차를 보다 체계화한다면 외부인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재학생의 입장 편의와 관람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포 카메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장 단계부터 현장 관리 방식까지 더욱 구체적인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 우선 물품 검사 과정에서 대포 카메라 등 촬영 장비 반입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 공연장 내부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장비를 몸에 숨기거나 일행이 나눠 들고 입장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도 가능한 만큼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 안내와 현장 확인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대포 카메라 사용이나 무단 촬영이 확인될 경우 즉각 제지하고 지정구역 외 촬영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입장 관리부터 현장 통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부 대응 체계를 갖출 때 재학생의 관람권과 안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맛이 행사는 신입생을 환영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관람권과 안전을 둘러싼 여러 과제도 함께 확인한 행사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체인 우리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다. 이번 행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잘 보완되어 향후 행사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때 우리학교 축제 역시 학생들을 위한 공동체의 장으로 한층 더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 내일을 만드는 기회 기회를 만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 글로벌캠퍼스의 취약한 안전 환경, 학생들의 일상은 안전한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정문 앞 거리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과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으며 뒤편 골목에는 자취촌이 형성돼 있다. 해당 거리는 학생들의 잦은 통행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부족해 야간 이용 시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전반적인 치안 여건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글캠은 정문부터

캠퍼스 끝까지 차도로 이어져 있는 차량 중심의 통행 구조로 캠퍼스가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편의와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캠퍼스 치안 현황 및 문제점△글로벌캠퍼스 안전 현황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글로벌캠퍼스 치안 현황 및 문제점

용인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평가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분야 3등급을 받았다. 이는 △감염병△사살△화재와 같은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낮은 등급으로 기록된다. 또한 지난 2021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통계에서는 용인시 민생 범죄 발생 건수가 93건으로 포천시와 화성시에 이어 경기도 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글캠이 위치한 모현읍의 경우 경찰서가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현재 모현읍에는 파출소가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학교 주변 유동 인구가 비교해 치안을 담당하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거 같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모현읍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 4,446명이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글캠 기숙사생과 거주지 이전을 진행하지 않은 자취생 수를 고려해봤을 때 학생들이 체감하는 치안 여건은 수치상 인구 규모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A 씨는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니 치안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욱 실감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남사읍(인구 2만 4,574명)△양지읍(인구 2만 2,052명)△이동읍(인구 2만 565명) 세 지역에 각각 한 곳씩 배치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모현읍은 비슷한 단위 지역과 비교해 파출소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 규모가 더 큰 편이며 치안 거점 밀도 역시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보긴 어렵다.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글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캠 인근 치안 및 안전 문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학교를 다니면서 안전과 치안 문제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문 앞 거리의 치안 환경 상황이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정문 앞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업시설 일대엔 노래방 등 일부 심야 영업 시설이 자리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B 씨는 “일부 업소 외부에 ‘야가씨 상시대기’와 같은 선정적인 안내 문구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거리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상권 뒤편 골목에는 학생들의 자취촌이 형성돼 있는데도 가로등과 CCTV가 충분하지 않아 취재 단속이 어렵고 밤길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근 자취생 김우혁(자연·수학 24)씨는 “어두운 밤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길가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위압감이 들어 불안할 때가 많다”라고 말했다.

## ◆글로벌캠퍼스 안전 현황 및 문제점

글캠은 외국어대사거리부터 정문까지 직선형 차로를 중심으로 상권과 자취촌이 함께 형성돼 있어 학생들의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차량 통행 구간과 맞물린다. 차도 주변에 형성된 상권 및 자취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다수는 대로변으로 나와 버스를 타거나 도로를 따라 걸어 통학한다. 여기에 캠퍼스 내부 역시 정문부터 최종 지점까지 차도가 중심을 이루고 광역버스와 통학버스까지 수시로 오가지만 별도의 신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학생들이 차량을 살피며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는 캠퍼스 구조 자체와 맞물린 안전 문제를 보여준다.

네이버지도 기준 글캠 정문에서 교내 기숙사까지의 거리는 대략 600m로 도보 기준 약 10분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 구간이 단순히 긴 보행 동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길을 걷는 동안 교내

를 순환하는 광역버스가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지나가 위험을 느낀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보도블록 또한 낙후돼 있어 고르지 못하거나 깨진 부분이 많아 보행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야간에 더욱 두드러진다. 교내 보행로에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아 밤길이 어둡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문부터 기숙사까지 이어지는 길목의 가로등은 12개로 약 50m마다 1개씩 설치됐다. 특히 보행로 좌측에는 차도가 인접해 있고 우측에는 구덩이가 있는 습지가 있어 자칫 균형을 잃어 넘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재학생 C 씨는 “정문부터 기숙사 근처까지 걸어가갈 때 가로등 빛이 너무 약한 데다 가시능률이 떨어져서 있어 때면 무섭다”라며 “해당 길에서 고라니를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옆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면 어두운 조명 아래에선 바로 반응하기 어려워 다칠 뻔한 적이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도로 중심 구조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

하기 위해선 △지자체△학교△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관련 문제점을 보면 교내 보행 안전과 관련한 기본 설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등 추가 설치△노후된 보도블록 교체△보행로 안전 펜스 설치 및 과속방지턱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안전관리계시판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 안전시설 개선에 나선 바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측은 “교내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해 과속 위험이 있는 구간엔 연속식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했고 필요 구간을 조사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건물 사이를 보행할 때 위험한 구간의 갭엔 탄력봉을 설치해 학생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우리학교 역시 학생들이 체감하는 안전 불안을 단순 민원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 교내와 달리 정문 앞 거

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는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과 같이 차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시설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설 설치에 △관련 법규△설치 기준△행정 절차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즉각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인근 파출소 또는 용인시와의 협조를 통해 순찰과 교통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문 앞 상권과 자취촌 일대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 동선에 포함되지만 교내가 아닌 외부 공간인 만큼 학교가 직접 관리하거나 단속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해 우리학교 글캠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전문 경비업체를 통한 교내 출입통제와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 접수 등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CCTV도 907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교내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안전관리다. 결국 학교 밖 생활권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시설 보완과 함께 인근 파출소의 순찰 및 교통안전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교직원△지역 경찰△학생이 협력하는 순찰 활동을 운영하며 취약지역 점검과 안전 사각지대 발굴 등 캠퍼스 안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모현파출소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파출소는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글캠 상권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는 야간 시간대 순찰에 더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도 글캠 인근에 두 곳가량 조직해 순찰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치안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물론 가로등과 CCTV 등 안전·치안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을 위해선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자체와 지역 경찰 더 나아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표로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수치



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캠의 교내 구조와 정문 앞 거리는 차도를 중심으로 상권과 각종 활동 시설이 형성돼 있어 구조적으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국어대사거리부터 정문까지의 상권 골목을 보면 상권을 가로지르는 도로엔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천천히’라는 경고 문구만 설치돼 있을 뿐 별도의 카메라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당 구간을 지나가는 차량이 과속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는 총 6개지만 이 가운데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버스과 자가용 등 여러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도로임에도 신호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은 차량 흐름을 살피며 불안속에서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김강백(공과·전자 24)씨는 “매번 길을 건널 때마다 차량 눈치를 보며 위태롭게 건너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라며 “간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차량도 있어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느낀 경우가 꽤 많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 글캠의 치안 및 안전 문제를 해결

리와 상권 일대는 학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외부 공간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 3. 26.(목) ~ 4. 1.(수) 16:00	2026. 4. 27.(월) ~ 5. 4.(월) 16:00
면접전형	2026. 4. 25(토) 10:00	2026. 5. 30(토) 10:00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시험 출석(영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실시-⑤합격자 확인



### ◆ 지원자격

####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의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 입시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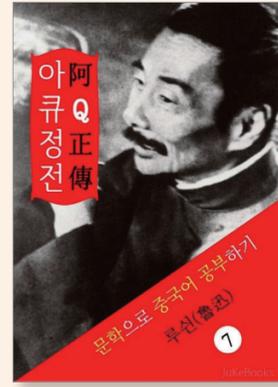
02173-2386, 2397



중국

<아Q정전>

- 내 안의 아큐를 마주하다 -



루쉰(魯迅)의 '아Q정전(阿Q正傳)'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 접했던 중화민국 시대 근대 소설이다. 당시엔 청나라 말기 신해혁명(辛亥革命)이라는 굵직한 역사적 배경과 시대의 흐름과 그 속에서 무지몽매(無知蒙昧)\*했던 당대 중국인들의 정신승리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집중하며 읽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나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대학생이 돼 이 책을 다시 펼쳤을 때 나는 뜻밖에도 끊임없이 자기합리화를 하는 주인공 아큐(阿Q)의 모습에서 부끄러운 내 얼굴을 발견하고 깊은 자기관성에 빠지게 됐다.

가끔 나는 학교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 '내 말이 다 맞다'는 독단적인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 때의 나는 갈등이 생겨도 내 잘못을 돌아보지보다는 상황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버린 것이다. 소설 속 아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동네 건달들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자식에게 맞은 격이다. 세상 참 말세다"라며 스스로를 정신적 승리자로 둔갑시킨다. 자신의 무능과 패배를 직시하지 못하고 허황된 자기합리화로 진실을 덮어버리는 아큐의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바라보며 그동안 '나의 이기적인 태도가 타인에게 얼마나 오만하고 답답하게 다가갔을까' 하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또한 책 속의 아큐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자들에게 화풀이하며 일방적인 위안을 얻는 장면 역시 나에게 깊은 기시감을 안겨주었다. 아큐는 마을의 권력자인 조 씨 어른이나 가짜 양놈에게 빼어난 굴욕을 당한 후 힘없는 작은 여승의 불을 쪼집고 조롱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아큐의 강약약강한 태도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맺어 온 관계의 방식과 태도를 돌아보게 됐다. 밖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힘듦을 즉시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가족에게 은연중에 짜증으로 표출한 적은 없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또한 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 스스로를 방어하고 감추려 했던 웅졸한 모습이 아큐의 행동과 겹쳐 보여 부끄러워졌다.

이러한 아큐의 지독한 자기합리화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혁명당원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조차 아큐는 자신의 삶을 뼈저리게 반성하기는커녕 "살다 보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법이지"라며 또다시 현실을 도피하고 스스로를 위안해 버린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현실을 외면하는 그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나 역시 사늘한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만약 나 또한 자기합리화로 총총히 포장된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훗날 내 곁에 있는 진정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목을 축이지도 못할 만큼 단절되고 고립된 사이가 돼버린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결국 '아큐정전'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20세기 초 중국인들의 딱 막힌 민족성을 조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루쉰의 날카로운 펜 끝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있다. 책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도 어느 순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정신승리로 현실을 도피한 적이 있지 아니한가." 이 책을 다시 읽고 난 후부터 난 내 안의 아큐를 늘 경계하며 조금 더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로 세상과 타인을 마주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해봄 기자 11haebom@hufs.ac.kr

이정민(통번역 · 독일어 23)

# 함부르크가 내게 남긴 것들

독일어통번역학과에 입학했을 당시 난 독일어에 큰 열정을 가진 학생이 아니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서 내 삶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 결과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고 B1 자격증도 취득했다. 이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돼 지난 2025년 1년 동안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다.

처음 독일에서의 생활은 기대와 실레과는 달리 쉽진 않았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외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



뜻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의 1년을 후회 없이 나다운 방식으로 살아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정한 이름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 'Lealich'엔 일상 영상을 비롯해겨울 크리스마스 마켓 △독학으로 배운 기타 연주△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함부르크 항구 개항 축제(Hafengeburtstag)까지 다양한 순간들을 담았다. 채널을 운영한 일은 독일에서 내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엔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이 준 선물과 편지를 하나씩 열어보며 큰 고마움과 감동을 느꼈다.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눈물이 나기도 했다. 평생 잊지 못할 꿈같은 하루였다.

교환학생 생활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 돌아보면 작년 한 해는 후회 없이 보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다. 이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은 브이로그(Vlog)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독일에서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동시에 이곳에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브이로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독일에서의 일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던 하루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작은 순간들까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전엔 스쳐 지나갔을 장면들도 어느새 기록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추억처럼 다가왔다. 브이로그는 단순한 영상 기록을 넘어 독일에서의 시간을 더 깊이 즐기게 해 준 계기가 됐다. 유튜브 채널 이름인 'Lealich' 역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Lealich는 나의 독일어 이름인 Lea에 형용사를 만드는 독일어 접미사 '-lich'를 붙여 만든 이름이다. 그래서 '레아답게' 즉 '나답게'라는

가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억을 기록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그 기록 속에서 특히 잊지 못할 순간은 내 생일인 5월 16일이었다.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함께 수업을 들으며 친해진 사람들과함부르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한국학과 학생들까지 약 스무 명이 함부르크 슈타트 파크(Stadtspark)에 모여 내 생일을 축하해 줬다. 낯엔 따뜻한 햇살 아래 푸른 잔디밭에 앉아



나는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유튜브 채널 이름인 'Lealich'처럼 독일에서의 1년은 내가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갔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 학군사관(ROTC)?

학군사관은 대학생 중 우수인원을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과 군사직무를 갖춘 정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1961년, 서울대 등 16개 대학에서 시작한 학군사관은 현재 전국 100여 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정교 양성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 학군사관후보생 주요 활동

1학기	인단 및 승급식 국내 전직지 탐방, 체육대회 호국보훈의 달 행사 군사교육 (학군단에서 이론교육)
여름방학	하계입영훈련 (4주) * 육군대학군사학교에 입영
2학기	해외 전직지 탐방 무제 (학군사관후보생 축제) 군사교육 (학군단에서 이론교육)
겨울방학	미 ROTC 설치대학 해외연수 (우수 후보생) 기초군사훈련 (4주 / 학군단 워드 시) 학군장교 임관식 / 임관 축하 행사

### 자유로운 대학생

- 군사교육 (훈련) 대학교 학점 인정  
학기 중 군사교육과 병행 중 임영훈련은 학점으로 인정 (대학별 상이)
- 자기개발을 위한 휴학  
휴학, 아학연수 및 인턴십 등 자기개발 목적으로 휴학 가능
- 교환학생  
외국 대학에서 군사학 과정 이수 시 휴학 없이 교환학생 가능
- 입영훈련 일정 조정  
각 학년에 해당하는 입영훈련 장석 제한 시 입영훈련 일정 조정 가능 (승인 시)
- 편입학 가능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교로 편입학 가능
- 아르바이트 가능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한 아르바이트 가능

### 다양한 경험

- 해외, 캄, 제주도, 동도 등 국내외 전직지 탐방
- 우수 후보생, 미국 ROTC 설치 대학 해외연수
- 한미 ROTC 후보생 동반 훈련
- 소급장교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군사훈련

### 경제적 혜택

후보생 선발 시 2년간 약 2,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으로 안정적이고 든든한 대학생활 가능!

구분	단기복무 장려금	학군생활 지원금	교보재비	훈련비 (매월)
3학년	1,200만원 (월시)	360만원 (8만원 X 20개월)	163만원 (약 6.92만원 X 24개월)	150만원
4학년				165만원

### 장교 임관 시 혜택

- 다양한 기업에 취업 기회 제공  
경고 임관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 부여  
권역 시 특별채용전형 지원 가능, 채용 시 우대
- 사회 도약 전 특문 마련 가능  
군인공제회를 통해 최원퇴직급여, 목돈 수탁저축 등 우대 금융상품 가입 가능  
\* 연복리 적용 등 높은 이율
- 장기복무 선발 시 경기간부 도약자금 가입 가능 (3년 만기 시 약 2,300만원)
- 인적 네트워크  
각계각층에서 24만명의 ROTC 동문 활약  
\* 장·관계 약 15,700명, 장·제계 약 57,000명  
\*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약 11,200명
- 군 속소 지원  
독신/기혼 간부 숙소 지원으로 타 직업 대비 주거비용 절감
- 장기복무 시 자기개발 기회 제공  
국내외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의(사)대 및 로스를 입학가능  
국외군사교육 및 외국어 교육지원

### ROTC 선발 안내

**모집대상**

- 학군단 설치 대학의 남녀 1, 2학년 재(准)학생
- \* 5년제 학과는 2, 3학년 재(准)학생
- \* 연령: 입영일 기준 만 20세 ~ 29세 이하
- \* 체대 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 가능

**모집시기**

- \* 1년에 2회 (2학기: 3-4월 / 1학기: 9-10월)

**선발과정**

#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한국외대 학군단 119 ROTC**  
☎ 02)2173-2595  
@hufs\_119rotc

# 잠 못 드는 청년들... 20대 평균 수면 6시간 30분 'OECD 최하위권'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남녀 모두 직접 경험한 건강위험 요인으로 수면 부족 및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평균 수면 시간보다 짧게 나타나 청년층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짧은 수면 시간이 청년층에게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 청년층 수면 부족 문제 현황 △ 청년층 수면 부족 원인 △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 청년층 수면 부족 문제 현황

건강관리기 회사 템마인즈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0분으로 OECD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2분보다 1시간 32분 짧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앞선 통계에서 나타났듯 20대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전 연령 중 가장 짧은 수면 시간을 기록하며 청년층 수면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청년삶실태조사에 따르면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수면한다고 답한 사람이 67.3%에 달했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수면 시간인 8시간 이상 수면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9%에 그쳤다.

이와 같은 수면 부족은 건강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수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0%가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층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 건망증 △ 기면증 △ 만성 두통 △ 불면증 △ 수면 무호흡증 △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으로 감소한 뒤로 무기력증과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겪었다"라고 털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최근 4년 사이 26%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속된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고 말했다.

## ◆ 청년층 수면 부족 원인

이처럼 수면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학업 및 취업 경쟁에 있다. 청년들에게 끝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잠도 줄여가며 노력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을 심어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은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 과제 △ 대외 활동 △ 아르바이트 △ 자격증 공부 등 많은 일정을 한 번에 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환자들에게 7시간 수면을 처방하면 '그렇게 자면 언제 일하고 언제 공부하냐'는 반문이 돌아온다"며 잠을 줄여가며 경쟁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받는 강박과 스트레스가 청년층의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수면연구학회 자료에서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62.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은일 씨는 "주위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편하게 쉬기만 하면 불안해서 뭐라도 하나 더 연구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감에 주말에도 출근하고 있다"며 "항상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보니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들더라도 새벽에 한 번씩은 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보상 수면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있다. 보상 수면이란 평소 일정 때문에 잠이 부족한 사람이 여유로운 날 몰아서 자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 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보상 수면을 취하게 되는 이유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수업이 많은 날에 충분히 자지 못한 잠을 공강일에 몰아서 자거나 △ 야간 아르바이트로 부족해진 잠을 휴무일에 자거나 △ 평일에 자지 못한 잠을 주말에 보충하는 방식이다.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연세대학교 재학생 김민지 씨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아침 7시라서 그때부터 오후까지 잠을 자게 되는데 이러면 수면 패턴이 꼬여서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우리학교 재학생 C 씨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수업을 가면 피로를 느꼈다"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마지막 원인은 보상 심리가 적용돼 일부러 취침 시간을 늦추는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취침 전에 휴대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이다. 서수연 성신여자대학교 행동과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피곤해도 자기 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31.3%) △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26.5%) △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18.1%)였다. 즉 하루 동안 자신을 위해 쓰는 여가 시간과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빠르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적 결핍과 허기를 채우는 방법으로 취침 전 휴대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이 취침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약 50% 감소시켜 수면 시작 시간을 평균 15분 이상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피곤했던 하루의 보상으로 삼는 휴대폰 때문에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 ◆ 나아가야 할 방향

많은 청년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먼저 침대와 매트리스부터 사용자의 숙면을 돕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몽가타에서 출시한 스웨이 침대는 아기가 자는 요람처럼 침대가 좌우로 흔들린다. 이는 귀속의 전정기관을 자극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 설정해 둔 기상 시간에 서서히 밝아지는 스마트 조명 △ 숙면에 좋은 향이 나는 필로우 미스트 △ 자율 감각 반응(ASMR) 영상 등 취침 환경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다.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경구형 수면 보조제이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해진 양지만 일상생활에서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한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생 연지현 씨는 "잠이 잘 안 올 때 멜라토닌이 들어간 사탕을 먹으면 금방 잠이 잘 온다"라며 제품의 효과를 직접 체감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수면 장애 환자가 증가하며 수면 건강 시장에 대한 제약 업계의 관심도 함께 커졌다. 특히 청년층이 애용하는 드러그 스토어 올리브영 등에서 수면 보조제를 출시하며 청년층을 공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스틱형 제품인 '꿀잠샷'을 출시해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 입점시켰다. CJ헬케어는 지난 한 달간 올리브영 강남 타

운에서 식물성 멜라토닌 브랜드 '멜라메이트'의 단독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 해당 팝업 스토어는 청년층을 겨냥한 체험 공간과 포토존을 마련해 두기도 했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 재학생 이하은 씨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멜라토닌 사탕을 사서 먹어봤는데 꽤 효과를 봐서 종종 먹는다"며 실제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게임도 출시됐다. '포켓몬 슬립'은 휴대폰을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 수면을 계속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게임으로 수면 측정 애플리케이션에 방치형 수집 게임의 특징을 넣어 재미 요소를 추가했다. 오래 잘수록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슬리파고치'는 이용자가 수면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이를 지켰을 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수면 시간 동안 모은 아이템으로 집을 꾸미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인 게임이다. 이 외에도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적정 수면 시간을 계산해 주거나 취침 알람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해지고 있다.

나아가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은 개인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 매일 햇빛을 볼 것 △ 저녁 8시 이전의 규칙적인 운동 △ 저녁에 과식하지 말 것 △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익대학교 재학생 박서현 씨는 "필라테스를 시작하면서 자다가 깨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학교 재학생 D 씨는 "과식한 날엔 유독 잠이 더 안 와서 식사량을 줄였더니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층의 수면 부족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청년들이 충분히 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들이 잠을 줄여야 하는 삶이 아닌 충분히 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모집

###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앙대학교, 유엔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mailto: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전공(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 모집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전문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이루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팀,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mailto: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 2026년 FLEX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 1. 2026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4.30(목)~05.06(수)	2026.05.31(일)	06.12(금)	07.03(금)
2회	10.08(목)~10.14(수)	2026.11.08(일)	11.20(금)	12.11(금)

-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7:00입니다.
-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제한없음
3. 평가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5. 응시료: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 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 확인처: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http://flex.hufs.ac.kr> (문의) 02-2173-2537
  - ▶ 성적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 건강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위한 과제는

최근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설립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뜨겁다. 1인 기획사는 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예술인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인 형태이나 그 이면에는 1인 기획사가 조세 회피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논란에 대한 철저한 문제 규명과 1인 기획사의 인정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본 기사를 통해 △1인 기획사의 현황과 문제점△1인 기획사의 법인 제도 약용과 행정적 한계△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 1인 기획사의 현황과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비율은 △2022년 2.5%△2023년 4.1%△2024년 4.3%로 집계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인 기획사란 소속 연예인이 한 명인 연예기획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인 형태를 띤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1인 기획사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연예인 자신이 콘텐츠나 일정 등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회사 수익을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의 이면엔 세금 추징 논란이 따라붙는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기획사 운영이 절세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탈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인이 실질적인 업무를 했는지 불명확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기획사 연예인들은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을 추징받은 연예인 A 씨 외에도 지난해 여러 연예인이 개인 법인을 활용한 거액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모두 연예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법인 매출로 처리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실제로 탈세 의혹을 받고 1인 기획사를 폐업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배우 B 씨는 1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고 자택을 법인 주소로 등록했다. 사내이사과 감사 직위에는 가족 이름을 올려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했고 가족 측은 생활비와 유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 B 씨는 법인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1년가량 정산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법인을 폐업하는 한편 기존에 낸 법인세와 더불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 ◆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

먼저 연예인 개인의 소득을 1인 기획사라는 법인의 수익으로 위장해 세율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비교해 보면 개인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최고 45%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25%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로 낮은 세율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오미순 국세청 조사과장은 "여러 가지 조사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수준의 소득 보수만 책정해 세금 신고한다"라며 "이는 고율의 개인소득세를 피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조세 회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헬프미(Helpme)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가족이 임원을 맡는 경우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 가족이 임원일 경우 내부 감사자가 없어 단속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없이 법인 제도를 남용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Money Today)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절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해당 1인 기획사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다면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인의 실체가 없다면 절세가 아닌 탈세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연예인 개인의 수익을 실체가 없는 법인을 통해 납세하고 비용 처리를 한다면 조세 회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상 법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담하게 감면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 설립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 생활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여 높은 세율을 피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1인 기획사의 등록 의무 미이행과 관리 주체 부족으로 인한 과세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해당 법인이 연예인의 매니지먼트와 계약 및 정산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체인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로 이를 미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예인들이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의 "매니지먼트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계약 체결△운영 구조△인력 구성 역시 일정 수준 이상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세무서에 따르면 1인 기획사가 관련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체로

가능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기획사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기획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감시가 어려울 수 있다.

## ◆ 나아가야 할 방향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이 "무엇이 합법적인 경영이고 무엇이 불법적인 일일인지를 가릴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1인 기획사 법인과 개인 소득자 사이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소득자의 조세 회피는 조세 징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탈세 창구로 악용되는 1인 기획사를 파악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족 법인을 규제하고 부분별한 법인 설립을 단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임원 등제 시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사내에 부당하게 쌓아둔 자본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명확한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과 관련해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1인 기획사가 정상적인 법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 주체 명확화△기준 소속사와의 역할 구분△기준 소속사 이외에 1인 기획사의 실질적인 역할 유무△인적 및 물적 설비 보유 여부△제작비용 투자 및 리스크 부담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예 사업이 발달한 다른 국가의 제도 또한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론아웃 코퍼레이션(loan-out corporation) 제도'에 따르면 연예인은 지분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보유한 1인 기업을 설립하여 계약을 해당 법인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연예인은 법인의 △대표△주주△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맺으며 법인이 활동 대금을 수령하고 비용을 처리한 뒤 급여나 배당 형태로 소득을 지급한다. 세무사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가 1인 인적 서비스 회사를 설립해 제작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연예인과 1인 법인 간 소득 비중을 과세당국이 재분류해 세율을 조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

법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일본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특정동족회사 과세제도'를 설립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특정동족회사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로 주주의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가 1인 기획사를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김유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정 이후 10년간 등록 제도가 사실상 신고제에 가깝게 운영되다 보니 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3월과 4월 중 집계되는 광역 지자체의 현황 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업 등록 요건 세분화 등 법 개정 작업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문체부가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처리한 사항도 문체부가 파악해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가 실시한 미등록 기획사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협조에 불응할 시 엄벌 조치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인 기획사가 탈세를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예술인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법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조세 제도 보완을 통한 투명한 납세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 없이 연예인들의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연예산업 생태계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사내유보금: 회사의 영업(이익잉여금)이나 재무 활동(자본잉여금)으로 생긴 이익 중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 내에 쌓아둔 자금

송수원 기자 11juwon@hufs.ac.kr

# www.사사한줄토막.com

## 정치 친여 성향 유튜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최근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인수 MBC 기자 출신 유튜브는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며 "김철은 이 메시지를 보며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장인수 씨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

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정창태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금 일각에서 근거 없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꾸려 했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사실 여부를 둘러싼 추가 검증과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회 비리·전횡 무더기 적발... 개혁 도마 오른 농협중앙회

△금품감독원△금품위원회△국무조정실△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단이 △농협중앙회△사회사△화원 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농협 비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하 강 회장)과 핵심 간부들이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반면한 예산 집행△비리 △전횡△특혜성 대출과 계약 등이 다수 확인됐고 내부 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회장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조합장들에게 제공할 선물과 답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답례품 등에 사용된 비용은 약 4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의 비위 사실이 다수 확인되자 당정은 개혁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품 선거 처벌 강화△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검토△비위 근절을 위한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 경제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 우려 심화...정부, 추경 편성 추진

중동 전쟁 여파로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국회 현안질의에서 "석유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피해를 보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추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제 발행 없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로 인해 화물차 운송업자와 에너지 취약계층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시장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 규모와 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국제 IEA, 전략비축유 4억 배럴 긴급 방출... 역대 최대 규모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4억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에 합의했다. IEA는 지난 11일 보도자료에서 "32개 회원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비상 비축유 중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오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략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지난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IEA는 그동안 석유

공급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전략비축유를 방출해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국제 유가 안정을 도모해 왔다. 파티흐 비를 IEA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는 석유 시장의 도전에 회원국들이 유례 없는 규모의 비상 공동 대응으로 화답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략비축유 방출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국제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중동이 맞이한 변화와 향후 국제 정세 전망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란의 핵시설 철수 요구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불발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를 동원해 공습을 감행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이하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상

군 파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가 일시적 충돌에 그칠지 장기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의 전망에 대해 유달승 우리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유달승 우리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

## Q1.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각각 국내 정치적 위기를 대외적 안보 이슈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구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란 공격은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국제 에너지 질서△세계 질서 재편△통화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petrodollar system)\*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트리비아스베누엘라스이라크시안에서 페트로 달러에 대한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했고 2011년에는 나토(NATO)\*\*가 주도한 군사 개입으로 리비아 가다피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진행돼 마지막 남은 국가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전개와 그 결과는 중동의 친미 아랍 산유국에도 일정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접근과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쟁은 국제 권력 구조의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강대국이 경쟁하는 이른바 C5 구조 속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다시 한번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Q2.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주변 걸프 협력 회의 국가(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걸프 국가)\*\*\*들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이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란은 미군이 주둔한 △바레인△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 구도를 단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대립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친미·친이스라엘 지역 질서와 이에 맞서는 반미·반이스라엘 저항 세력 간의 대립으로 재구성하고 이

스라엘에 강한 반감을 품은 무슬림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방어 중심의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방어 협력을 강화△외교적으로 이란과 긴장 관리△전략적으로 전쟁의 확산 억제 및 자국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 Q2-1. 이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에도 각각 쿠웨이트 알살렘 이탈리아 기지와 키프로스 영국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나토 회원국까지 공격을 뻔해나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란은 이번 전쟁의 성격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습이 장기화할 경우 방공 요격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 핵심 탄약의 소모가 빠르게 증가해 탄약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기가 소진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하고 공습을 중단한 뒤 전력 재 정비 및 무기 보충 후 다시 공격을 재개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차단하기 위해 공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분쟁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세계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을 겨냥한 비대칭 전략을 활용해 지구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Q3. 이번 공습으로 37년간 신정체제\*\*\*\*를 이끌었던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며 새 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습니다. 새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국가 직위를 맡은 적이 없어 대외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치적 업적과 공개된 활동이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란 사회에서 처음 크게 주목된 것은 지난 2009년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며 확산한 녹색 운동을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는 시위 진압 과정의 배후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되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습니다. 또한 그의 후계 가능성은 권력 세습 문제와도 맞물려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세습 군주제를 부정하며 성립된 체제이기 때문에 권력이 혈연을 통해 승계되는 방식은 체제의 이념적 정통성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전시 상황으로 판단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저항과 순교의 상징적 서사와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며 이 전쟁의 종결 및 휴전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과 상징성을 갖춘 유일한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휴전에 동의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결정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며 이란 내부의 강경파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Q4.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4~5주 동안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라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전을 통해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동 내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초기 미국의 전쟁 목표는 정권 교체였으나 이후 △미사일 능력 제거△역내 대리 세력 지원 근절△해군 전력 격파△핵무기 개발 차단 등 몇 가지 제한적인 목표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전면적인 체제 붕괴를 추구하기보다 일정한 군사적 성과를 달성한 뒤 적절한 시점에 종료하려는 이른바 출구 전략의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의 지역 영향력을 약화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동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 Q5.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의 항공편이 중단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공습사태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친 실질적 피해 규모와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LNG의 약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산업 전반의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해상 물류비와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원화 약세와 증시 하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기업의 생산비는 약 0.3% 증가하고 수출 물량은 2.48%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은 약 0.39%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Q6.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동 국가와 대규모 수주 사업을 비롯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경제·외교적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군사 당사국이 아닌 만큼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만을 비롯한 주요 아랍 국가들과 긴밀히 접촉해 중재자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중재 외교는 한반도 문제와도 전략적으로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중재 경험과 네트워크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북한 관련 사안에서도 대화 촉진자 또는 신뢰 구축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petrodollar system): 국제 석유 거래가 달러화로 결정되는 구조.  
\*\*나토(NATO): 서유럽과 미국 간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에 바탕을 둔 지역적 집단 안전 보장 기구.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부른다.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아라비아 반도의 군주국 6개국이 △교류△무역△협력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국제기구.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오만△카타르△쿠웨이트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  
\*\*\*\*신정체제: 신의 대변자인 사제가 지배권을 가지고 종교적 원리에 의해 통치하는 정치 체제.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4.13.(월) ~ 4.24.(금)	2026.6.1.(월) ~ 6.12.(금)
면접전형	2026.5.9.(토) 10:00	2026.6.27.(토) 10:00
합격자 발표	2026.5.22.(금) 16:00 예정	2026.7.10.(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6.5.26.(화) ~ 5.29.(금)	2026.7.13.(월) ~ 7.17.(금)

###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교육</li> <li>• 영어교육</li> <li>• 컴퓨터교육</li> <li>• 스페인어교육</li> <li>• 일본어교육</li> <li>• 중국어교육</li> <li>• 역사교육</li> <li>• 일반사회교육</li> <li>• 유아교육</li> <li>• 수학교육</li> <li>•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li> </ul>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영어교육</li> <li>• 독서논술교육</li> <li>• 문화콘텐츠교육</li> <li>• 지속가능발전교육</li> </ul>

###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173-2419 FAX. 0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26학년도 후기 입학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4. 6(월) ~ 4. 24(금)	2026. 6. 1(월) ~ 6. 17(수)
교사장 발표	2026. 5. 6(수) 15:00	2026. 6. 24(수) 15:00
면접전형	2026. 5. 9(토) 10:00 예정	2026. 6. 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5. 22(화) 15:00	2026. 7. 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5. 26(화) ~ 5.29(금)	2026. 7. 13(월) ~ 7. 17(금)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에: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교사일 및 시간은 추후 공지)

###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감면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생 전원 장학금(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109에서  
112로

내가 외대학보 112기에 다시 지원한단 소식을 들은 109기 동기들은 그럴 줄 알았더라...  
응원의 문자를 보내줬다. 지난 2024년 한여름에 시작한 방중 교육부터 2024년 한겨울에  
끝난 109호 발행까지 외대학보와 함께한 내 첫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 학기 동안  
외대학보 109기 기자로 활동하며 힘들지 않았더라면 거짓말이다. 마감하면서 다음 호  
기사에 대해 고민했고 인터뷰 실패로 스트레스도 받았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마감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도 높았고 외대학보 일정에 개인 일정을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하  
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109호 취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다시 외대학보에 돌아오  
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당시엔 그저 예정돼 있던 1년 간의 교환학생 생활만 잘 마  
무리하고 오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떠난 독일에서의 생활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행복했다. 별다른 계획 없  
이 떠나는 여행도 좋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다. 그렇  
게 정신없이 여름학기를 보내고 방학이 됐다. 잦은 여행 때문에 지친 상태로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동기들의 소식을 접하게 됐다. 누군 인턴을 시작했고 누군 휴학하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누군 대외 활동을 쉼 없이 하고 있었고 누군 졸업 시험을 통과했  
다. 분명 같은 시기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인데 다들 만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살  
고 있었다. 문득 매주 여단가로 여행을 떠나고 학교 수업은 주에 이틀만 가는 내 삶이 그  
들에 비해 한참 뒤쳐진 것처럼 느껴졌다. 만약 내가 교환학생을 오지 않았다면이란 생  
각으로 시작해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때 외대학보에서 학술 공모전이 처음으로 열렸다. 내가 학보 기자로 활동할 당시에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하나로 언급됐던 공모전이 실제로 시행된 것이다. 공모전 공고를  
접하자마자 동기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던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공모  
전에 글을 써서 냈고 그 글로 대상까지 받게 됐다. 공모전에 낼 글을 쓰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삶의 진정한 활기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난 다시 외대학보에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 돌아온 외대학보에서 난 109기가 아닌 112기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해냈던  
일이니 전보단 쉽게 할 수 있었지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던 외대학보 활동은 내가 없던 1  
년 사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다. 밥을 먹고 치우는 방식부터 공모전 시행  
과지면 변화까지 크고 작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마냥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걸 다시금 느끼게 됐다. 내가 1년 동안 변한 것처럼 외대학보도 조금씩 변화하  
고 있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전에 외대학보 활동  
을 하며 아쉬웠던 부분들이 점점 보완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학보 활동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가끔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찬찬히 돌아켜보니 힘들었던 기억보  
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어려운 사  
람을 대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  
도 넓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됐다. 특히 외대학보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대학  
생활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  
다.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하는 학보 생활이 내  
삶에 또다시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다시 잘  
해보자 외대학보!

정은솔 기자



[책 '모래의 여자'를 읽고]  
반복되는 일상의 의미와 자유

차장 너머 보이는 풍경은 매일같이 반복된다. 변진 수채화같이  
알아볼 수 없는 초록빛 잔상들을 바라볼 때면 문득 도망치고 싶  
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일상이 그저 어제의 되풀이로만 느껴질  
때 까마득히 남은 생은 형벌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은 우리를 자유에 목매도록 만든다. 아베 코보(安  
部公房)의 '모래의 여자' 속 주인공 역시 반복되는 삶의 염증으로  
그 일상에서 도망쳤다.

남자는 행방불명 됐다. 그 남자의 취미는 발레수집으로 그는 새  
로운 종의 벌레를 찾기 위해 모래땅으로 향했다. 모래마을의 사  
람들은 사구 밑에 살며 모래에 파묻히지 않도록 매일 모래를 파  
낸다. 남자는 과부의 집에 하룻밤 몸을 맡기다 그곳에 감금되고  
만다. 남자는 자신의 일상과 바깥 세계를 그리워하며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해 다시 사구 밑으로 보내  
진다. 유수 장치를 만들어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마침내  
사다리가 내려진 순간 언제든 나갈 수 있던 생각에 탈출하지 않  
는다. 그리고 7년 뒤 남자는 실종돼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다.

'모래의 여자'를 관통하고 있는 메타포는 모래다. 모래는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다. 작품의 흐름은 모래의 흐름을 따라 전개된다.  
모래땅이라는 초현실적 배경에서 남자는 도망치고 싶었던 일상  
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유를 잃었다. 이 초현실적인 경험은 삶

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  
다. 남자의 삶은 모래를 만나 드디어 흐르기 시작했다.

남자는 모래땅에 도착하기 전 삶의 의미는 이름을 남기는 것으  
로 성취된다 믿는다. 이후 권태를 느끼고 도망친 남자는 감금 생  
활로 자유를 잃고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다. 그는 탈출이란 희망  
만을 꿈꾸며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자유의 땅과 일상의 터전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돼 그 어디에도 꿈꾸던 자유와 이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남자는 결국 반복되는 일상에서 삶의  
의미는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로의 선택임을 깨닫  
고 밖으로 나가길 거부한다. 이 장치는 전통적인 아크 플롯(arc-  
plot)을 비껴가는 현대 문학의 모습을 보인다.

온통 모래로 둘러싸인 초현실적인 배경의 이야기는 나 역시 녹  
녹한 모래에 잠기도록 만든다. 모래와 뫼비우스의 띠라는 메타포  
그리고 남자의 눈으로 바라본 모래땅이라는 세계와 결말의 반전  
은 독자에게 충분히 충격적인 소설로 남는다. 작가가 작품을 통  
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인류 보편적인 실존에 대한 문제라는 점  
은 효과적으로 독자와 작품을 연결한다. '모래의 여자'는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이  
라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영화 '해피엔드'를 보고]  
청춘의 지향점에 대하여

영화 해피엔드(Happy End)는 가까운 미래의 도교를 배경으로 마  
지막 학창 시절을 보내는 다섯 명의 고등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테크노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클럽에 놀러 가고 밤새  
동아리방에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청춘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러나 이 순간이 계속될 것만 같던 그들의 우정은 삼각시 체계  
대지진스협오 사회 등으로 인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영화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춘들이 느끼는 혼란과 균열을 담아낸다.

영화는 '가까운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자막과 함께 시작한다.  
교내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자유  
로웠던 공간은 관리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한다.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교칙에 위반될 때마다 벌점이 매겨진다. 교장  
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라는 이유로 감시 체계를 정당화한다. 주  
인공 유타(ユウタ)와 코우(コウ)는 이러한 통제에 반항하며 감시 체  
계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감시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만 골라  
하며 이슬이슬한 학교생활을 이어간다. 이러한 장면은 조지 오웰  
(George Orwell)의 소설 『1984』를 연상케 한다. 소설 속 주인공 윈  
스턴이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사각지대에서 몰래 일기를 쓰  
듯이 영화 속 주인공들 역시 억압된 현실의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  
자신들의 자유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대지진 이후 불안이 커진 사회에서 혐오와 통제가 어떻  
게 강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일본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라  
는 이유로 독재하고 이민자들을 순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란 세력으로 규정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 불안 심리를 이용

해 혐오의 대상으로 향해 손가락을 겨누게 만들고 권력은 그 틈에서  
더 강한 통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재일한국인 코우는 학교에서  
도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사회에 대한 반감을  
키워 간다. 그는 학교에서 일본 총리의 독재에 맞서는 운동권 친구  
후미와 가까워지며 영향을 받는다. 한편 코우가 사회 혼란을 예민  
하게 느끼는 동안 유타는 여전히 음악만을 듣고 유전한 장난을 치  
며 사회를 방관한다.

영화를 보고 나면 나는 어떤 낭만을 지향하며 어떤 삶의 방향으  
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음악이 전부인 유타에  
게 낭만을 함께했던 시간을 지키는 데 있다. 친구들과 음악을 나누  
던 순간과 지금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기억이 성인이 된 이후  
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반면 재일한국인 코우에게 낭만은  
현실을 바꾸는 데 있다. 차별과 혐오가 반복되는 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구조에 반항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처럼 두 사람이 추구하는 낭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 유타에  
게 낭만은 지금의 관계와 기억을 지키는 일이고 코우에게 낭만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변화를 선택하는 일인 것이다. 유타와  
코우의 갈림길은 단순한 우정의 균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처럼 남는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1112호 학보를 읽고

김민서(영어·영문 24)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새로운 시작 앞에서 돌아본 학교 안팎의 이야기

달력상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새 학기 개강과 신입생들의 입학이 있는 3월이 돼서  
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실감 나는 것 같다. 새 학기  
의 시작에 맞춰 개강호인 1112호를 발행한 외대학보  
는 우리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사안을 독자들에게 전  
한다.

3면 중기회에선 우리학교 선발 정보 비공개 문제를  
조명한다. 기사에선 △국제 교류 선발△교직 이주△  
이중 전공△전과 선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지  
적하며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  
다. 나 역시 국제 교류를 준비하며 대략적인 △면접 질  
문△어학 성적△학점 기준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답  
답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 만큼 기사에 매우 공감  
이 됐다. 기사에서 제시된 타학교의 사례처럼 우리학  
교 역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선발 정보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생활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면에선 새롭게 바뀐 우리학교 수강신청 방식에 대  
한 △이점△문제△나아가야 할 방향 순서로 제시한  
다. 사전수강신청제도가 도입된 덕분에 지난해 발생  
한 서버 과부하 및 매크로 이용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  
다. 하지만 바뀐 수강신청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  
하는 학생들과 여전히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만  
큼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편입생이 사전  
수강신청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나는 문제이기에 이들을 위한 제도 또한 신속히 마련  
되길 기대한다.

5면은 우리학교 잔디 운동장의 외부인 출입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도는 증가했다. 하지만 외부인 출입 역시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 사항 또한 증가했다. 기사엔  
외부인의 운동장 출입으로 인해 △시설 훼손 및 관리  
비 부담 증가△안전사고 우려△학생 정규 활동 및 훈  
련 방해 등의 문제가 제시됐다. 학교 운동장은 지역사  
회에 개방된 공공 공간이지만 본래 목적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인 만큼 우리학교 학생들의 권  
리가 존중 받는 범위 내에서 개방돼야 할 것이다.

8면에선 최근 개최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  
이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관심을 받지 못한 문제를 다  
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  
픽이 무관중 속에 진행된 핵심적인 이유는 JTBC의 독  
점 중계권으로 인한 보편적 시청권의 침해다. 지난 올  
림픽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경기를 보고 모  
두가 뜨겁게 응원했던 것 같은데 나 역시 이번 해 우  
리나라에선 올림픽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을 체감  
했다. 정부 및 제도 차원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 개최될  
국제 대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 돼 즐기는 축제  
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학교 안팎의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운 겨울 방  
학 중에도 취재를 진행한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응원  
과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할 외대학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자들을 향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112호 학보를 읽고

정지웅(국가전력·형기리 24)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편입생의 시선으로 읽은 외대학보: 대학과 사회를 바라보다

늦겨울의 추위와 따스한 햇살이 함께 느껴지는 3월의 초  
입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이번 해 편입한  
나는 대학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  
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외대학보가 눈에 들어왔다. 외대학  
보가 어떤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서관에 놓  
인 신문을 집어 들었다. 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학내 제도  
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호에서 가장 눈에 띈 내용은 3면에서 다룬 우리학  
교의 선발 정보 비공개 문제 기사였다. 기사에선 △국제교  
류 선발△이중전공△전과와 같은 주요 선발 과정에서 학  
점 커트라인이나 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  
했다.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소문이나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  
도 기사에서 언급했다. 나 역시 편입생으로서 이중전공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봤지만 구체적인 기준  
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막  
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사에서 제시한  
일정 수준의 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학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기준 정보가 제공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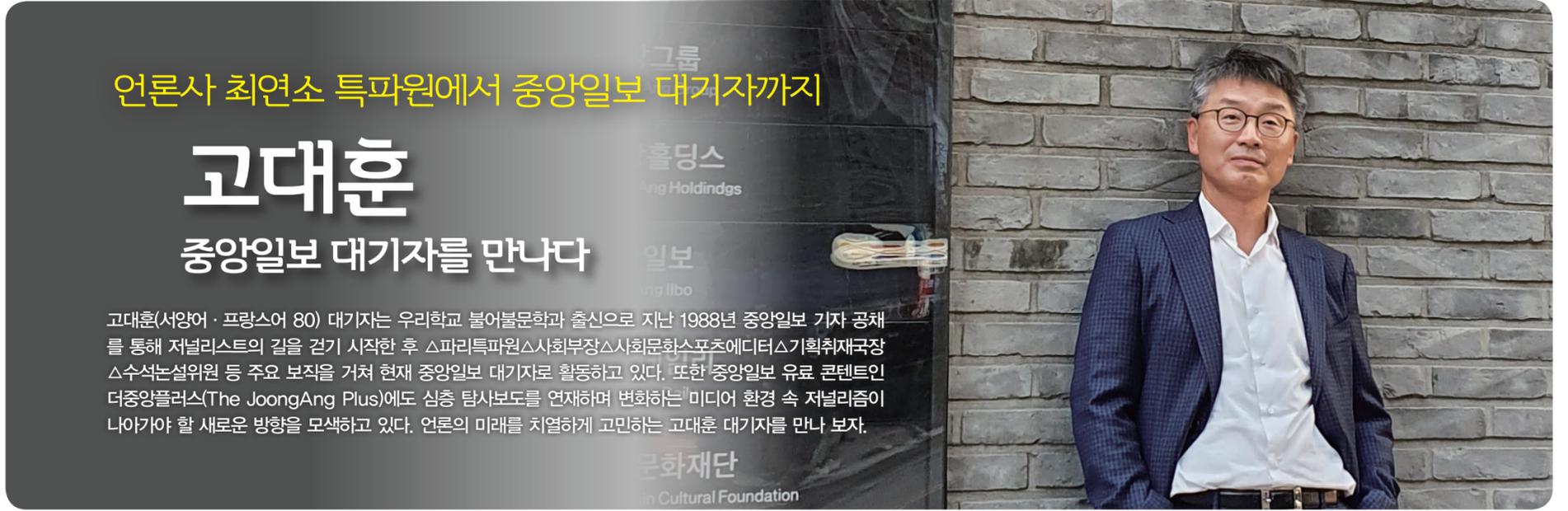
5면에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잔디 운동장과 외부인 이  
용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지난 2024년 잔디 운동장이 건  
립된 후 동아리 활동과 체육 수업 여건이 개선되는 등 긍  
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외부인 유입이 늘어나며 학  
생들의 활동 공간이 침해될 수 있던 우려도 제기됐다. 학  
칙상 대운동장은 학생들에게 우선 사용권이 있지만 이러

한 규정이 실제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 지역사회 개방에 따른 시민과 학생 간 이용 균  
형이 필요하며 외부인 출입 시간 통제나 대학과 동대문구  
청의 공동 관리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8면에선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 중계의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올림픽 중계권은 JTBC가 단독으로  
확보하며 접근성이 낮아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든 점이 아  
쉬웠다. 한 방송사의 독점 중계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특히 올림픽처럼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에선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특정 방  
송사의 독점 중계를 지양하고 누구나 주요 스포츠 중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9면에선 설탕세 도입 논의를 다뤘다. 설탕세는 당부가  
높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비만이나 당뇨  
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사에선 설탕세  
가 소비 감소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  
개했다. 설탕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의  
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물가 상승이나 소비자 부담 증가  
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  
인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탕  
세 도입 여부는 국민 건강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  
을 찾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외대  
학보가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선으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문제를 전달하는 매체로 자리해 주길 기대한다.





언론사 최연소 특파원에서 중앙일보 대기자까지

고대훈  
중앙일보 대기자를 만나다

고대훈(서양어·프랑스어 80) 대기자는 우리학교 불어불문학과 출신으로 지난 1988년 중앙일보 기자 공채를 통해 저널리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파리특파원△사회부장△사회문화스포츠에디터△기획취재국장△수석논설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 중앙일보 대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 유료 콘텐츠인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에도 심층 탐사보도를 연재하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언론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고대훈 대기자를 만나 보자.

**Q1. 우리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입학 당시인 1980년의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정치와 경제 등 전체적으로 크게 낙후된 시절이었습니다. 소위 선진 서양 문명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낭만이 우리학교와 프랑스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는 68혁명의 진원지였고 문화와 경제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앞섰던 나라였기에 동경이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 제2외국어로 불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작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1980년대는 시위의 시대였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휴교령으로 인해 캠퍼스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채 거리 시위에 종종 참여하고 세상을 한탄하는 보통 대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운동보다는 사회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제 적성에 맞다고 판단했고 그 실현의 통로로서 기자를 선택했습니다.

**Q2-1. 재학 시절 기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군대 제대 후 복학하면서 기자의 꿈을 굳히며 언론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전국적 종합 일간지는 10개 남짓이었고 방송사도 지상파 3개가 고작이어서 바늘구멍과도 같았습니다. 시사 문제 공부하기△신문 읽기△좋은 오피니언 글을 베껴 쓰는 훈련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Q3. 중앙일보 입사 후 △파리특파원△사회부장△기획취재국장△수석논설위원 등 여러 보직을 맡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보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리특파원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사회에서 전공을 살리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자 생활 5년 차에 특파원으로 발령받았는데 언론사 최연소 특파원이라는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5,000에서 10,000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중진국이라 불리던 1993년부터 1997년까지 3년 8개월 동안 파리에 체류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무대로 취재를 담당했으며 아프리카로 3차례 출장을 가 △기아△내전△대통령 선거 등을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문기자의 특성상 혼자 돌아다녔기 때문에 무섭고 위험한 경험을 했지만 되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회사의 도움으로 세계를 유랑한 셈입니다.

**Q4.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 느낀 기자라는 직업의 매력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자가 악인들과 어울리는 부패한 인물로 곧잘 묘사됩니다. 기자가 이슬만 먹고 살지는 않지만 소위 메이저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스스로 부패와 비리를 경계한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부패와 비리 등 타인의 그늘진 면을 조사하는 게 기자의 본능이자 존재 이유이니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자의 매력은 직장인인 동시에 자유 직업인이라 사실입니다. 언론사는 일반 기업과는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젊은 기자들은 필요할 때만 회사에 가끔 들어가 사무실에 책상조차 없습니다. 밖에서 현장을 취재하러는 뜻입니다. 취재 활동에서는 개인의 재량이 아주 큼니다. 스스로 주제와 방향을 잡고△취재원을 섭외하고△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때 보람을 느낍니다.

**Q5. 38년간 기자로 재직하며 보도하신 많은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자 생활 대부분을 사회부에서 권력형 비리와 같은 대형 사건을 다루며 보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지 않아 신문 1면에 낙종\*하게 되면 다음날 신문이 나올 때까지 24시간 동안 밥이 목에 안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만회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2006년 5월 H그룹 1,000억원대 비자금 사건은 신문사들끼리 특종 경쟁을 하면서 대검 수사부 수사가 한 달가량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A 회장과 그의 아들인 사장이 △동시에 구속되는가△한 명만 구속되는가△한 명이면 누구인가를 놓고 취재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아버지 구속-아들 불구속'이란 제목으로 선수를 쳤고 결과적으로 맞았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Q6. 이번 해 1월부터 중앙일보 대기자로 재직 중입니다. 대기자와 일반 기자의 역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앙일보 60년 역사에 대기자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대단히 명예로운 직함입니다. 기자로서 오를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일은 일반 기자와 같지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주요 언론사 중에서도 대기자를 두고 있는 곳은 한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보직입니다.

**Q7.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로 기성 언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 언론의 필요성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인들은 뉴스 홍수 속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 먹어야 건강해지듯 뉴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좋은 뉴스를 선별하고 건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독자의 평가를 받는다면 기성 언론은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Q8. 최근 유료 심층 콘텐츠인 더중앙플러스를 연재하고 계십니다. 더중앙플러스는 기존 일반 기사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나요?**

더중앙플러스는 획일화된 포털 중심의 뉴스 공급 방식을 탈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전국 종합 언론사 중에서 유료화 시도는 중앙일보가 처음입니다. 올해 4주년을 맞은 더중앙플러스의 월 5,000원 내외의 유료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스포츠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성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소재와 콘텐츠를 전함으로써 독자들이 커피 한 잔 값을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유료 콘텐츠 구입은 △스트리밍 음 △웹툰 △잡지 △OTT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의 확산됐으면 합니다.

**Q8-1. 더중앙플러스와 같은 언론의 유료 심층 콘텐츠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뉴욕타임스(NYT)의 유료 인터넷 독자 수는 약 1,221만 명입니다. 프랑스 르몽드(Le Monde) 등 유럽 언론 역시 유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뉴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내 대다수 언론은 뉴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상업광고를 끌어들이며 수익을 맞춥니다. 포털 기사의 경우 클릭이 광고와 연동되다 보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미끼 기사를 올려 낚시를 합니다. 이것이 광고가 뒤받침된 뉴스가 자주 보이는 이유입니다. 뉴스는 돈 주고 보는 상품이라는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독립과 기사의 독립성이 가능해집니다.

**Q9. 언론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린 마음△악인들이 편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근성△편견과 편향을 배척하는 정치적 올바름과 이를 토대로 취재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글솜씨를 겸비해야 합니다. 체력과 정신력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인 투 파이브(9 to 5) 생활을 원한다면 기자의 꿈은 다시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Q10. 마지막으로 언론인을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자들끼리 "기자가 돈이 없지 가요가 없냐"라고 농담조로 얘기합니다. 기자에게 △도덕△의리△절개를 갖춘 선비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지난 38년 동안 기자라는 직업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의 삶 속에서 상당한 자유와 재량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도전해 볼 만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낙종: 특종을 놓쳤다는 뜻으로 기사에서는 타 언론이 보도한 특종을 놓쳤다는 의미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

서울우유 서울우유

A2 전용목장 100% A2우유

플러스1.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플러스2. EFL공법

FOR BETTER MILK A2+ A2 PLUS MILK A2 플러스우유

A2 전용목장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EFL공법

100% A2우유

100% A2우유 + EFL공법

100% A2우유 710 mL(500 kcal)

“Make the world healthy with milk.”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